

수자원공사,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

급여 나눔과 국민 모금 통한 취약 시설·가구 지원



1 박재현 사장(오른쪽)과 직원들이 KTX 대전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생활 방역을 홍보하며 손 세정제를 나눠주고 있다.
2 박재현 사장(오른쪽)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해 꽃을 전달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5월 11일 서울역, 대전역, 오송역, 동대구역, 부산역, 창원중앙역, 광주송정역 등 전국 7개 도시의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 방역 홍보 행사를 벌였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KTX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 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 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이 담겨 있다.

또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더블 기부 프로젝트를 펼친다.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의 이중(더블) 모금함에서 국민들이 대상을 선택해 기부하면 공사가 모인 기

부금과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활동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 해피빈(네이버 공익재단)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대상은 생활 방역과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과 가구를 대상으로 약 20개 사례를 선정하고, 5월 11일부터 2개월간 모금이 진행된다. 지원대상별 모금 한도는 990만원이며, 총 모금 목표액은 1억9천800만원이다. 총 목표액의 약 50%인 1억원을 공사가 기부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바구니 전달 이어가기(플라워 버킷 챌린지), 자율 모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전국 13개 지자체에 댐·광역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공사 보유 자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박재현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 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⑦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활짝!

우리 모두 함께 할 때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딛고 경제에 희망의 꽃씨를 담아 새롭게 꽃피우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